



2025년 5월

소그룹 인도자, 참가자 공용



너희가

**잡을 서로 지라**

갈6: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난 4월에 이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습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요즘 내 마음 상태를 날씨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맑음, 구름 조금, 비 온 뒤 갭, 우중충, 폭풍전야, 태풍, 무지개, 안개, 눈폭풍 등】
- ② 그렇다면 지금 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 오늘의 성경 읽기 \_ 빌립보서 1장 1-11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습관」 공동 인트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기쁨’, ‘즐거움’, ‘감사’와 같은 단어들이 아주 짧은 책 안에 1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행복의 책이 감옥에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에 달린 것이 아니다”**

바울은 행복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감옥이라는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돈? 성? 시간 관리?

바울은 행복의 출발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이혼 과정에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 불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위한 습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네 가지 습관을 살펴봅시다.

## 세 번째 습관 ▪ 어려울 때 일수록 <sup>1</sup>○○하라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sup>2</sup>○○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빌립보서 1:7

---

“여러분은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바울은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유독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려울 때 <sup>3</sup>○○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 궁핍했을 때,
- 감옥에 갇혔을 때,
- 홀로 외로웠을 때

멀리서 재정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를 돕고 중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이야기】

한 성도가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말하길,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는 평생 잊히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함께 있어준 그 사람**이 평생 마음에 남았다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좋은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약할 때, 아플 때** 생깁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 빌립보서 1:8 [메시지 성경]

---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지나며 맺어진 마음의 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저 ‘도움을 준 교회’가 아니라,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함께 걸어간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그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 힘은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다시 어려울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는 법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라’,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라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나눔1】**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나눠보세요.

또한, 나는 지금 누군가의 ‘어려운 시간’에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로마서 12:15

**【나눔2】** 누군가의 ‘어려운 때’에 내가 외면하거나 거리 두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주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요한일서 4:19

“지난 4월에 이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습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 가볍게 근황토크

- ① 요즘 내 마음 상태를 날씨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맑음, 구름 조금, 비 온 뒤 갬, 우중충, 폭풍전야, 태풍, 무지개, 안개, 눈폭풍 등】
- ② 그렇다면 지금 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 오늘의 성경 읽기 \_ 빌립보서 1장 1-11절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습관」 공동 인트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기쁨’, ‘즐거움’, ‘감사’와 같은 단어들이 아주 짧은 책 안에 1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행복의 책이 감옥에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에 달린 것이 아니다”**

바울은 행복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감옥이라는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돈? 성? 시간 관리?

바울은 행복의 출발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이혼 과정에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 불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위한 습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네 가지 습관을 살펴봅시다.

## 네 번째 습관 ▪ 사람들의 1〇〇을 믿고 격려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2〇〇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빌립보서 1:6

---

이 유명한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가진 **신뢰와 격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큰 이유 하나는 바로,

**서로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 “재는 원래 그래.”
-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실망의 표현을 넘어, 관계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히기 시작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도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6절을 더 생동감 있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지금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 빌립보서 1:6 [의역]

---

바울은 성도들의 **현재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조용히, 꾸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함’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3〇〇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격려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결과나 실력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

성장을 격려해주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버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 안의 가능성’을 터치해주세요.

- “요즘 너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게 느껴져. 그게 너무 귀해.”
- “지금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널 통해 꼭 귀한 일을 이루실 거야.”
- “지금 모습도 충분히 소중한. 하나님이 널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빚어 가실지를 바라보며 격려해 주세요.

그건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라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나눔1】** 누군가가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해줬던 기억이 있나요? 그 말이나 태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 **데살로니가전서 2:11**

**【나눔2】**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시선으로 격려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안에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 **히브리서 10:24**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마치나요?】

6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9

모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 왜 기도 제목을 나누나요?**

▶ 기도제목을 보고,

함께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보기도팀에도 요청도 가능)

▶ 기도제목을 보고,

다음 모임에서 더 관심 있게 다가가 들을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을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이

기도제목이 출석체크를 대신합니다.

3페이지 \_ 1 함께, 2 마음, 3 함께

6페이지 \_ 1 성장, 2 시작, 3 성장